

속초해경, 항포구 어선 제설작업



고성군을 비롯한 영동지역에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설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속초해경이 제설작업에 나섰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지난 9일 오전부터 파출소 단위로 거진항 등 각 항포구에 계류된 어선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관내 항포구에 정박중인 어선들의 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어민들은 선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해양긴급번호 122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폭설로 인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속초 1척, 강릉 동해 삼척 24척, 포항 1척 등 26척의 어선이 침몰했다. 원광연 기자

속초해경 민간자율방제대 워크숍



속초해경 민간자율방제대 활동모습.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영북지역 민간 자율방제대의 운영평가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민간 자율방제대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워크숍은 대부분의 방제대원들이 어민들로 구성된 점을 감안해 12월중 풍랑주의보 발효시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영북지역에는 3개의 방제대가 활동 중이며, 특히 이들 방제대는 지난달 22일 대진항에서 발생한 충돌선박 침수로 항내에 연료유 70L가 유출됐을 때 신속한 방제작업을 펼치는 등 지난 1년간 총 3건의 대형오염사고를 사전 차단했다.

속초해경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국의 지역별 자율방제대의 운영에 대한 현안사항 공유, 2012년 자율방제대의 운영과 발전방향에 관한 협의, 방제 11호정 견학 등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자율방제대는 경찰서와 거리가 먼 지역에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 방제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유출된 기름의 확산방지 등 초동방제조치를 하는 순수 민간방제체력으로서 지난 2009년 5월 전국 최초로 거진 민간자율방제대가 창단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된 제도이다. 원광연 기자

고성경찰서 전화사기 막아

김모씨 1천200만원 피해 막아... '지급정지 간소화 시스템' 효과

고성경찰서(서장 이용완)는 지난 9일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피해 신고를 받고 '지급정지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해 해당계좌를 지급 정지시켜 피해금 1천2백만원을 회수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했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김 모씨(43세, 여)에게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돈 세탁 사건 수사 중 돈이 인출되고 있으니, 피해 예방을 위해 지시하는대로 개인정

보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 김 모씨는 이를 사실로 믿고 사기범이 불러 달라는 통장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뒤늦게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112신고센터로 신고를 했다.

이에 112신고센터에서는 신고 접수 즉시 '전화금융사기 지급정지 간소화 시스템'에 연결해 금융기관, 신고자, 경찰관 등 3자 전화통화를 통해 즉시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 1천2백만원의 피해금 인출을 방지했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최근의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점차 지능화, 교묘화되어 가고 있으니, 일단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112신고센터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주말, 송지호 둘레길 함께 걸어요”

강원고성갈래길본부 지난 10일 탐방걷기대회 ... 회원 등 100여명 참가

강원고성갈래길본부(대표 최선호)는 지난 10일 회원과 가족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파랑길 가운데 하나인 '송지호둘레길' 탐방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열린 화진포둘레길 탐방 걷기대회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 왕곡마을 - 송지호변산소길 - 두백산등산로(정상) - 송호정 -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구간 10.7km를 탐방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송지호둘레길 주변에는 1988년 8월18일 전국 제1호 전통건조물 보전지구로 지정돼 옛 조상들의 삶의 현장을 음미해 볼 수 있는 왕곡마을이 있으며, 재첩 생산지로 유명한 송지호와 천연기념물 201호 고니 등 철새들의 비상을 볼 수 있는 철새관망타워가 있다.

특히 송지호둘레길 주변 두백산 정상에 오르면 아름다운 동해의 해안경관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송지호 둘레길은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 왕곡마을 - 송지호변산소길 - 두백산등산로(정상) - 송호정 -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구간 10.7km로 구성됐다.

만끽할 수 있으며, 공현진항의 바다낚시, 가진항의 화타운 활어회, 어명기 전통가옥, 해양심층수연구단지 등 풍부한 즐길거리가 산재돼 있다.

강원고성갈래길본부 윤선준 사무처장은 “이번 걷기행사를 통해 정확한 길의 노선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

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아름다운 명품길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해파랑길은 부산 오륙도 공원부터 동해안 최북단 고성통일전망대까지 약 800km 노선이 조성됐으며, 고성지역 해파랑길은 강원고성갈래길본부가 개척했다.

최광호 기자

속초해경 시민인권보호단 정기총회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제안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일 오전 11시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시민인권보호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속초해경 시민인권보호단은 지역내 법조인출신과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연간 2회 정기회의를 실시하

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희근 단장(변호사)은 수사중 피해자 심정 이해와 신고자의 안전과 비밀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배영란 위원(속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했다.

속초해양경찰서 김홍희 서장은 “해상치안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권 침해행위의 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 여성, 노약자,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속초해경에서는 증거위주의 수사와 조사 진행사항을 영상녹화화 하고 있으며, 여경조사관과 여성전용 유치인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광연 기자

고성신문 구독신청
☎681-1667